

# 서울시 소규모 개인사업체 변화추이 및 특성분석

박희석 연구위원 · hspark@sdi.re.kr

오동훈 연구원 · likedeepblue@sdi.re.kr

한진아 연구원 · cycle13@sdi.re.kr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창의시정연구본부

## I. 서론

## II. 서울시 소규모 개인사업체 현황

1. 서울경제 및 소규모 개인사업체 일반현황
2. 서울시 소규모 개인사업체 산업별 현황

## III. 서울시 소규모 개인사업체 공간적 분포 및 특성

1. 서울시 소규모 개인사업체 공간적 분포
2. 서울시 소규모 개인사업체 산업별 공간적 분포

## IV. 시사점

## I. 서론

- 소규모 개인사업체는 상시근로자수 5인 이하<sup>19)</sup>(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체는 10인 이하)의 법인 또는 단체가 아닌 개인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체를 지칭하며, 우리나라 전체 사업체 중 대부분이 소규모 개인사업체에 속함
  - 소규모 개인사업체는 전 산업에 걸쳐 생산 및 유통과정의 기초 단위로 지역경제의 기반을 형성하고 있으며, 가족 및 개인기업 형태의 생업적 성격이 강해 사회 안정 및 고용창출 등 사회경제적 역할이 지대함
  - 서울시의 경우 전체 사업체 중 소규모 개인사업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기준 80.6%로 사업체 대부분 도소매업, 숙박 음식업 등 내수 관련 업종으로 구성되어 서울 시민들의 체감경기와 직결된다고 볼 수 있음
- 전국의 2010년 2분기 경제성장률은 7.2% 증가, 서울의 산업생산 역시 6.8% 증가하는 등 전반적인 경제상황은 호전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체감경기 회복은 여전히 부진
  - 서비스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진 서울의 가시적인 경기회복과 시민들의 체감경기 호전을 위해서는 소규모 개인사업체의 경기회복이 곧, 서울 시민들의 전반적인 체감경기 회복에 핵심이라 판단됨
  - 그러나, 소규모 개인사업체의 경기회복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효과적 대책수립을 위한 서울시 소규모 개인사업체 현황파악 및 특성분석이 부족한 실정으로 관련 연구가 필요함
- 따라서, 이번 분석을 통해 서울시 소규모 개인사업체의 현황과 특성을 파악하고 향후 서울시 소규모 개인사업체 지원정책 마련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 먼저 2장에서 서울시 소규모 개인사업체의 현황을 살펴보고, 3장에서는 서울시 소규모 개인사업체 공간적 분포 및 특성을 분석하도록 함
  - 이러한 분석을 통해 기존의 소규모 개인사업체를 대상으로 한 창업 및 운영 자금지원 정책 이외에 산업별, 공간 입지적 특성이 고려된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

19) 「중소기업기본법」 2조 2항,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2조2항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정의에 근거

## II. 서울시 소규모 개인사업체 현황

### 1. 서울의 소규모 개인사업체 일반현황

- 서울경제는 2000년부터 2008년 기간 중 서비스 부분을 중심으로 연평균 3.2% 성장 (GRDP 기준)하였음
  - 산업별로는 서비스업은 3.5% 증가한 반면 제조업은 0.9% 감소를 나타내 서울시 총사업체 기준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2008년 기준)은 89.4%로 서울 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큼
- 2000년부터 2008년까지 서울시 사업체 수는 큰 변동이 없으나 산업별로 제조업은 감소, 서비스업은 다소 증가
  - 구체적으로 서울시 총 사업체 수는 2000년, 2008년 기간 중 약 72만개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제조업은 연평균 1.1% 감소, 서비스업은 0.0%로 보합임
- 2000년부터 2008년까지 서울경제가 성장한 반면 서울시 소규모 개인사업체의 경우 동일한 기간 중 사업체 수는 전반적으로 감소
  - 서울시 소규모 개인사업체 수는 2000년, 2008년 기간 중 연평균 -0.8% 감소하였으며, 세부적으로 제조업은 1.2%, 서비스업은 0.7% 감소함
- 이러한 결과는 경제성장률과 총 사업체 및 소규모 개인사업체 변화가 서로 다른 것은 경제성장률과 체감경기가 차이를 보일 수 있음을 의미
  - 특히 소규모 개인사업체의 경우 서울경제가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감소하여 체감경기와의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음

〈표 1〉 서울시 지역내총생산(GRDP), 사업체수 변동추이

(단위: 천억, 천개, %)

구 분	2000	2008	성장률(증감률)
지역내총생산	1,822	2,341	3.2
제조업	117	109	-0.9
서비스업	1,434	1,885	3.5
총 사업체 수	720	720	0.0
제조업	62	56	-1.1
서비스업	641	643	0.0
소규모 개인사업체 수	617	580	-0.8
제조업	53	48	-1.2
서비스업	555	523	-0.7

## 2. 서울시 소규모 개인사업체 산업별 현황

○ 소규모 개인사업체의 산업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도소매업, 숙박 음식업, 운수업과 같은 생활형 서비스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도소매업 29.8%, 숙박 음식업 18.6%, 운수업 14.8%를 기록한 반면 제조업 비중은 8.2%, 건설업은 1.7%로 상대적으로 구성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그 외 지식기반 서비스인 보건복지업과 교육서비스업은 각각 2.5%, 3.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2〉 서울시 소규모 개인사업체 산업별 비중

(2008년 기준, 단위: %)

구 분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운수업	숙박 음식	부동산 임대업	교육 서비스	보건 복지
산업별비중(%)	8.2	1.7	29.8	14.8	18.6	4.8	3.9	2.5

○ 도소매업, 숙박 음식업 등 생활형 서비스업의 사업체 수는 2000년 이후 소폭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지식기반 서비스인 교육 서비스와 보건 복지산업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교육서비스 분야와 보건복지 산업이 각각 4.2%,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매 및 소매업(-2.4%), 제조업(-1.2%), 숙박 및 음식업(-0.5%) 순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이는 도소매, 숙박음식업의 경우 산업 비중이 타 산업에 비해 높아 창업 및 폐업율의 변동치가 높아 생기는 현상으로 판단됨

〈표 3〉 서울시 소규모 개인사업체 연평균 증가율

(2008년 기준, 단위: %)

구 분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운수업	숙박 음식	부동산 임대업	교육 서비스	보건 복지
연평균증가율 (00년~08년)	-1.2	0.4	-2.4	1.5	-0.5	1.7	4.2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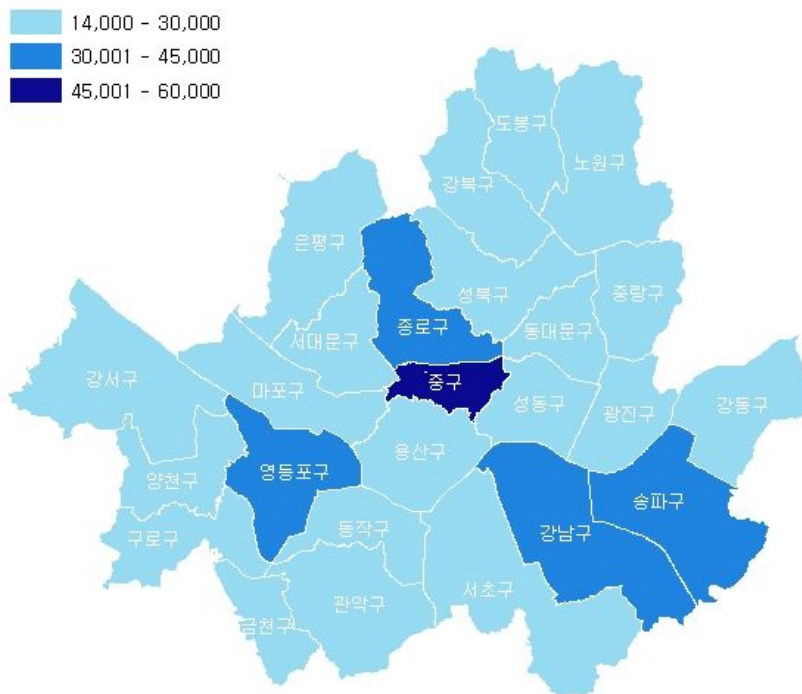
### III. 서울시 소규모 개인사업체 공간적 분포 및 특성

#### 1. 서울시 소규모 개인사업체 공간적 분포

##### 1) 구별 소규모 개인사업체 수

○ 서울시 소규모 개인사업체 수가 가장 많은 구를 살펴보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간 분포도로 나타냄

(단위: 개)



[그림 1] 구별 소규모 개인사업체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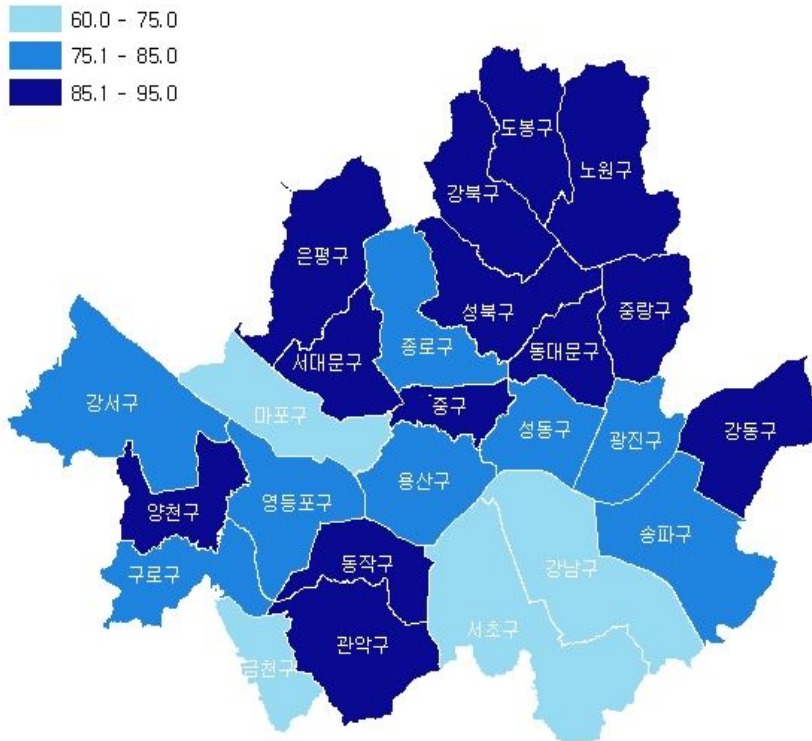
○ 서울시 구별 소규모 개인사업체 수가 가장 많은 곳은 중구(6.1만개)로 나타남

- 서울시 구별 소규모 개인사업체는 전반적으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으나, 주로 도심인 (중구, 종로구) 부도심 지역(중구, 종로구, 강남구, 송파구, 영등포구)에 집중되어 있음
- 가장 밀집된 지역은 중구로 6.1만개 소규모 사업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강남구(5.2만개), 송파구(4.1만개), 영등포구(4.0만개), 종로구(3.8만개)순으로 사업체가 분포되어 있음

## 2) 지역별(구별) 소규모 개인사업체 구성비

○ 서울시 25개 구별로 전체 사업체 중 소규모 개인사업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다음과 같이 나타남

(단위: %)



[그림 2] 구별 소규모 개인사업체 비중

○ 각각의 구별로 전체 사업체 중 소규모 개인사업체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지역으로는 강남보다는 강북이 높은 비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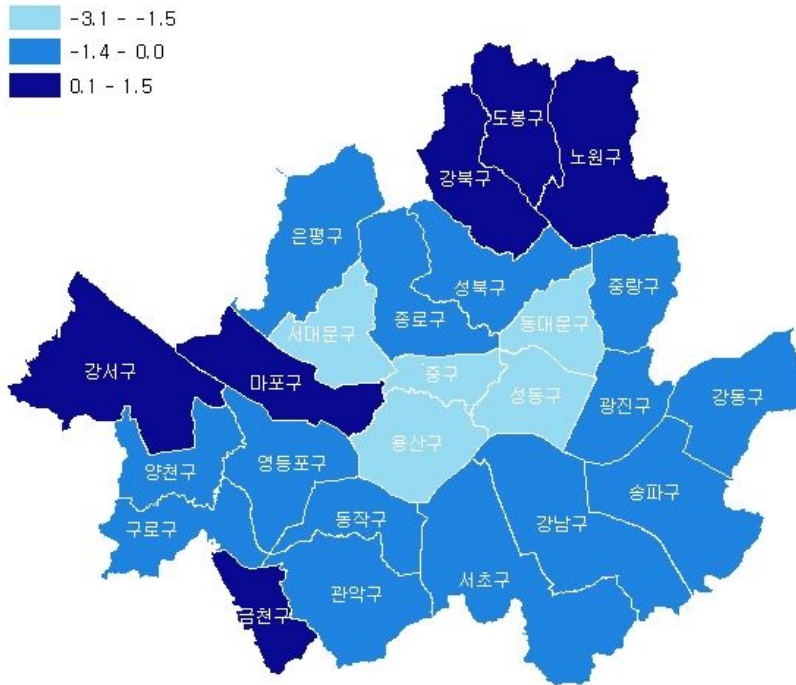
- 특히 강북의 개인 사업체수 비중은 85% 이상인 지역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남. 반면 강남은 상대적으로 소규모 개인사업체의 비중이 낮은 것으로 조사됨

○ 그러나, 대부분의 지역에서 전체 사업체 중 소규모 개인사업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81.9%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서울시 사업체의 80.6%가 소규모 개인사업체 중심으로 이루어짐

## 3) 지역별(구별) 소규모 개인사업체 성장률(증감율)

○ 서울시 25개 구별 소규모 개인사업체의 2000-2008년 연평균 증가율은 다음과 같은 공간 분포를 나타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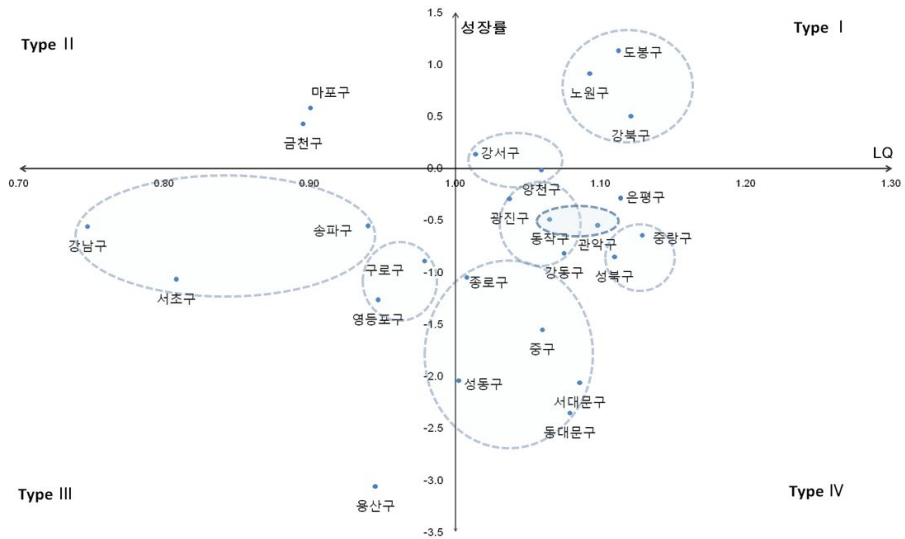
[그림 3] 구별 소규모 개인사업체 성장률(증가율)

○ 서울시 소규모 사업체 증가율은(2000-2008년 연평균 증가율 기준) 강북권(강북구, 도봉구, 노원구)과 강서권(강서구, 마포구, 금천구)을 중심으로 증가하였음

- 서울시 소규모 개인사업체의 연평균 증가율은 전반적으로 감소. 특히, 도심지역은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강북 3구인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와 강서구, 마포구, 금천구 등 재개발 사업이 활발한 지역을 중심으로 소규모 사업체 증가율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조사됨

#### 4) 공간적 특성 분석

○ 공간적 특성 분석에서는 앞서 제시된 소규모 개인사업체의 성장률(2000-2008년 연평균 증가율)과 입지상계수(LQ: Location Quotient)<sup>20)</sup>를 기준으로 서울시 공간적 특성을 살펴보고자 함



성장률(증가율)	
타입 II : 특화도 ↓ 성장률(+) 성장가능지역	타입 I : 특화도 ↑ 성장률(+) 성장지역
타입 III : 특화도 ↓ 성장률(-) 낙후지역	타입 IV : 특화도 ↑ 성장률(-) 정체지역

(LQ)

[그림 4] 서울시 소규모 개인사업체 지역별 특성 구분

20)  $LQ(\text{특화도}) = (r_{\text{지역}} \text{ 소규모 개인사업체수} / r_{\text{지역}} \text{ 총사업체수}) / (\text{서울 소규모 개인사업체수} / \text{서울 총사업체수})$



○ 성장률과 특화도를 기준으로 구분된 4가지 타입의 특성은 다음과 같음

- 타입 I: 강북 3구(도봉구, 노원구, 강북구)와 강서구는 2000년 이후 빠르게 성장세를 보이는 성장지역임
- 타입 II: 마포구와 금천구는 소규모 개인사업체의 중요도가 다소 낮지만 플러스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 향후 소규모 개인사업체 중요도가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지역으로 판단
- 타입 III: 강남 3구(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와 구로, 영등포, 용산구 등 부도심으로 분류되는 지역은 소규모 개인사업체의 비중이 높지 않으며 감소. 단, 용산구의 경우 재개발 사업 등의 여파로 일시적으로 소규모 개인사업체의 이주에 따른 단기적인 현상일 수 있어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판단됨
- 타입 IV: 서울시 대부분 구가 타입 IV에 속하며, 소규모 개인사업체 정체 지역에 속함. 타입 IV는 중요도는 높지만 성장률이 마이너스인 곳으로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한 곳으로 구별 특성에 맞는 대책이 강구되어야 함

○ 소규모 개인사업체의 공간 인접성, 특화도, 연평균 성장률을 기준으로 8개 권역으로 구분되어짐 ([그림 4] 그림에 점선 그룹화 참고)

○ 각 지역별로 강북권과 강서권은 타입 I, 강남권과 영등포권은 타입 III, 나머지 권역은 타입 IV로 구분할 수 있음

〈표 4〉 권역별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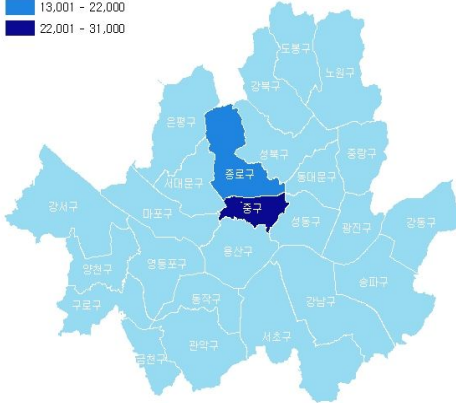
구분		지역	소규모사업체 특화정도			성장률
타입 I	강북권	도봉구, 노원구, 강북구	LQ	>>	1	++
	강서권	강서구, 양천구	LQ	>	1	+
타입 III	강남권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LQ	<<	1	-
	영등포권	영등포구, 구로구 (용산구)	LQ	<	1	-
타입 IV	종부권	종구, 종로구, 성동구, 서대문구, 동대문구	LQ	>	1	--
	관악권	관악구, 동작구	LQ	>	1	-
	강동권	강동구, 광진구	LQ	>	1	-
	종랑권	종랑구, 성북구	LQ	>>	1	-

## 2. 서울시 소규모 개인사업체의 산업별 공간적 분포

- 서울시 소규모 개인사업체 중 비중이 높은 산업들은 지역별로 고르게 분포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산업별로 다소 차이를 보는 것으로 나타남
- 서울시 소규모 개인사업체에서 산업별 비중이 높은 상위 6개 산업을 대상으로 구별 공간적 분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도소매업[그림 5]은 전반적으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으나 특히, 도심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숙박 음식점업[그림 6]은 주로 도심과 부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으며, 강남구에 가장 많이 밀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운수업[그림 7]은 비도심지와 서울시 외곽지역에 주로 분포. 특히, 노원, 중랑, 강서구에서 운수업이 가장 특화된 것으로 조사됨
  - 제조업[그림 8]은 영등포구와 중구에 주로 집중되어 있었으며, 그 외 지역의 제조업 현황은 4천개 이하인 것으로 나타남
  - 부동산 임대업[그림 9]은 강남구를 중심으로 서초, 송파, 관악, 강동구에 주로 밀집되어 있음
  - 교육 서비스업[그림 10]은 도심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 고르게 분포. 특히 교육열이 높은 양천구, 강남구, 송파구, 노원구를 중심으로 밀집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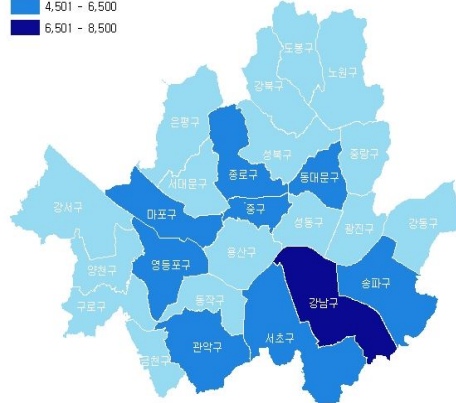
(단위: 천개)

3,000 - 13,000  
13,001 - 22,000  
22,001 - 3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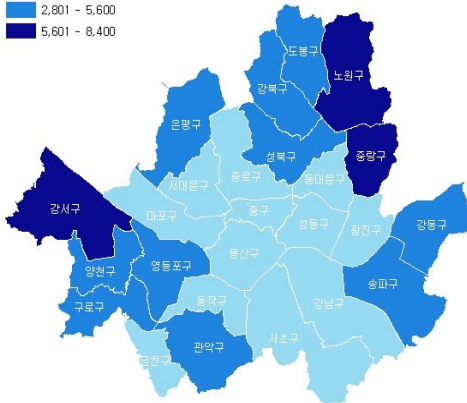
[그림 5] 도소매업

2,563 - 4,500  
4,501 - 6,500  
6,501 - 8,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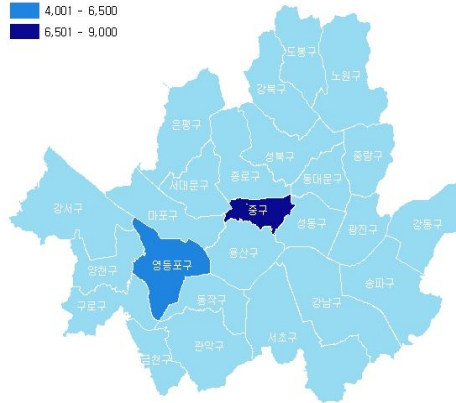
[그림 6] 숙박 음식점업

900 - 2,800  
2,801 - 5,600  
5,601 - 8,4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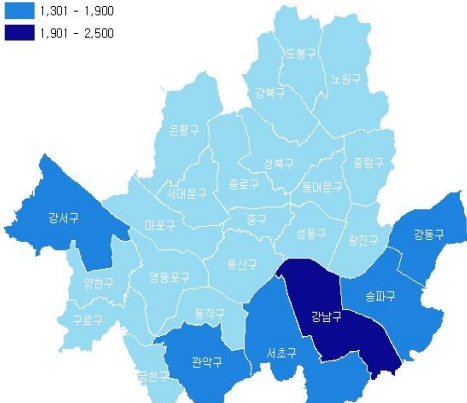
[그림 7] 유수업

500 - 4,000  
4,001 - 6,500  
6,501 - 9,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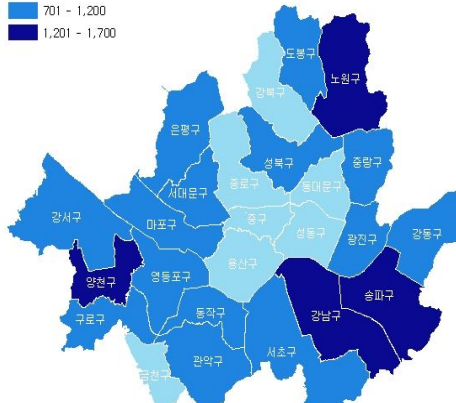
[그림 8] 제조업

500 - 1,300  
1,301 - 1,900  
1,901 - 2,500



[그림 9] 부동산 임대업

200 - 700  
701 - 1,200  
1,201 - 1,700



[그림 10] 교육 서비스업

- [그림 5]~[그림 10]의 내용을 바탕으로 산업이 공간적 클러스터를 형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Getis and Ord의 Local G 분석 통계량을 활용하여 분석(<표 4> 참고)
- 분석결과 Local G 통계량을 기준으로 도소매업, 운수업, 제조업은 공간적으로 집중되어 분포되어 있는 반면, 숙박·음식업, 부동산 임대업, 교육서비스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고르게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산업별 특징을 고려하여 앞서 제시한 8개 권역의 특화산업을 구분하면 <표 5>와 같이 분류할 수 있음
  - <표 5>에서 ■■■로 표기된 산업은 지역 내 소규모 개인사업체 중 해당 산업의 비중이 10% 이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산업임
  - 운수업은 강북, 강서권 외에 각 지역 전반에 걸쳐 큰 비중을 차지하는 특화 산업인 경우가 많아 소규모 개인사업체에서 눈여겨볼 산업으로 판단됨
  - 타입 III인 강남권과 영등포권은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출판영상방송통신 정보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지원 서비스업이 특화된 것으로 나타남. 주로 강남과 영등포는 업무지원 성격을 가진 소규모 개인사업체가 특화된 것으로 조사됨
  - 중부권은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같은 전통형 산업이 특화됨. 그밖에 금융보험, 시설관리지원, 전문 과학 등의 산업도 혼재되어 있음
  - 관악권, 강동권은 운수업, 숙박·음식점업 등 생활지원 성격이 강한 산업들이 집중 분포되어 있음

<표 5> 서울시 소규모 개인사업체 산업별 Local G 통계량

구 분	도·소매	숙박 음식	운수업	제조업	부동산 임대업	교육 서비스
Local G stat. (Z Score)	2.49**	0.63	-1.93*	2.93***	-0.55	-0.89
Spatial Cluster	Cluster	Random	Cluster	Cluster	Random	Random

주: \* 10% 유의수준, \*\* 5% 유의수준, \*\*\* 1% 유의수준

〈표 6〉 권역별 특화산업 (소규모 개인사업체 기준)

구분		특화산업
타입 I	강북권	<b>[운수업]</b> , 하수·폐기물·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강서권	하수·폐기물·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b>[운수업]</b> , 교육서비스업, 건설업
타입 III	강남권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지원서비스업, 건설업, <b>[숙박·음식점업]</b>
	영등포권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b>[제조업]</b> , 하수·폐기물·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b>[운수업]</b> , 사업시설관리 및 지원서비스업, 건설업
타입 IV	중부권	<b>[제조업]</b> , 금융및보험업, <b>[도매 및 소매업]</b> , 사업시설관리 및 지원서비스업,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
	관악권	부동산임대업, 건설업, <b>[숙박·음식점업]</b> , <b>[운수업]</b>
	강동권	건설업, 교육서비스업, 운수업, 부동산임대업, 사업시설관리 및 지원서비스업, <b>[숙박·음식점업]</b>
	종량권	하수·폐기물·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b>[운수업]</b> , <b>[제조업]</b>

## IV. 시사점

- 소규모 개인사업체는 타 업종에 비해 그 비중이 높고 지역적으로 고르게 분포되어 지역경제의 기반을 형성하고 있어 서울시 지역경제의 중요한 구성요소로 판단됨
- 서울시 소규모 개인사업체의 산업별 구성을 보면 도소매업, 운수업, 숙박음식점업이 63.2%를 차지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창업이 용이한 산업에 집중도가 높음
  - 이번 분석을 통해 산업별 적정수준의 소규모 개인사업체 수를 알 수 없으나,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의 경우 마이너스 성장률(2000-2008년 기준)을 보이고 있어 다소 정체단계에 놓인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현재 지원되고 있는 창업자금 지원제도 뿐만 아니라 창업 전 창업설계를 위한 체계적인 컨설팅 프로그램(창업업종의 다양화와 차별화 전략 교육 등)을 제공하는 등 소규모 개인사업자를 위한 지원 서비스를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서울시 25개구 대부분에서 소규모 사업체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연평균 성장률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성장률의 감소는 기존의 도심, 부도심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어 향후 이러한 현상의 원인이 소규모 개인사업체의 입지특성, 창업특성 등 구조적 요인에 의해 나타나는 공간적 패턴의 변화인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 할 것임
  - 만약 구조적인 요인(입지특성, 창업특성)에 의한 공간패턴 변화일 경우, 향후 서울시 소규모 개인사업체가 지가, 상주 인구밀도 변화 등의 요인에 의해 서울시 이외 지역, 특히 수도권으로 이전할 가능성이 있어 서울시 경제의 구조적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임
- 따라서, 기존의 소규모 개인사업체 창업자금 또는 운영자금 지원정책에서 벗어나 산업별 차별화 및 도시 공간구조에 변화를 모니터링하면서 정책을 펴나갈 필요가 있음
  - 현재 부도심 도심에 특화산업으로 나타나고 있는 사업지원서비스, 출판영상, 연구 부분의 경쟁력 강화와 기존의 음식점, 숙박, 운수업 등의 정책지원을 적절히 배분하는 것이 서울시 소규모 개인사업체의 발전을 위한 방법이라고 판단됨